

동국산업 안상철 대표, "고품질 앞세워 수요 확대할 것"

8 박준모 기자 | 2018.04.24 17:00 승인

높은 품질 요하는 제품 생산에 점차 집중할 것
신사업 진출 등 사업다각화 고민 지속

동국산업 안상철 대표가 고품질을 앞세워 수요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신사업에 대한 고민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산업 안상철 대표는 24일 본지 송재봉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을 만나 철강업계 내 현안과 주요 이슈에 대해 환담을 나누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최근에는 범용재보다는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해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기 힘든 제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해외에서 꾸준히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동국산업 안상철 대표는 고품질을 앞세워 수요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산업은 국내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수출 비중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접 수출비중이 35%, 간접 수출비중은 15%로 직·간접수출을 합치면 비중은 약 50% 수준이다.

안 대표는 "국내 수요는 현대기아차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GM 생산 감소에도 영향은 미미하다"며 "글로벌 업체들의 품질 요구는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어 회사도 이에 맞춰 고 품질을 요구하는 제품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사업에 대한 고민도 지속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다각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민을 지속하면서 다른 사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국산업 안상철 대표가 본지 송재봉 사장을 만나 철강업계 현안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동국산업은 지난해 3,823억5,3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8.3% 증가했다. 영업 이익은 264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 늘었다. 그러나 순이익은 193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줄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지난해 판매량은 2016년과 비슷했지만 제품단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순이익은 2016년 보유자산인 주식을 매각하면서 2017년에는 전년대비 순이익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지 송재봉 사장은 "올해도 철강업계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동국산업을 비롯한 철강업계와 철강금속신문이 힘을 합친다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산업 안상철 대표(오른쪽)와 본지 송재봉 사장(왼쪽)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모 기자